

아이오닉·니로 출시 ... 친환경차 시장 커진다

〈현대·기아차〉

지난해 말 기준 18만361대 등록

1년새 무려 28.6% 증가

전체 차량 대비 보급률 1% 넘을지 관심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18만여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대비 친환경차 보급률은 1%를 밑돌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친환경차는 총 18만361대로 한해 전인 2014년 말에 비해 28.6% 증가했다.

하이브리드가 17만4620대, 전기차 5712대, 수소차 29대로 이중 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27.0% 증가했고 전기차는 두 배 늘어났다.

지난해 말 등록된 자동차는 총 2098만9885대이며 친환경차는 전체의 0.9%를 차지했다. 1년 전 0.7%에 비해 0.2%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100대 중 1대도 안되는 보급률이다.

올해부터는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전용차 출시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을 출시했고 기아차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 친환경 전용 SUV '니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친환경 전용차는 파워트레인(동력계)이나 차량 공간을 친환경차의 용도에 최적화해 설계한 맞춤형 차여서 기존 차량을 개조한 친환경차에 비해 연비나 동력능력이 우수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14일 아이오닉을 공식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1만5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시장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 3만9000대에 약 40%가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에 기아차 니로가 더해지고 도요타의 신형 프리우스도 시판될 예정이어서 올해 하이브리드가 판매는 전년 대비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도 확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가 3만40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3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1471대의 친환경차에 대해 보조금 201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전기차에는 차량 보조금 12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세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자체별 300만~8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보조금 100만원 지원과 270만원

의 세금 감경 혜택이 부여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에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 500만원 지급과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휘발유 자동차는 980만8633대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경유 자동차는 862만2179대로 8.6% 늘어난 반면 LPG 자동차는 225만7447대로 3.4%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 자동차의 비중은 2014년 말 37.8%에서 1년만에 3.3%포인트 늘어나며 40% 선을 넘어선 41.1%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6 시카고 오토쇼(2016 Chicago Auto Show)'에서 소개된 기아차 친환경 소형 SUV '니로(Niro)'. 국산 최초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는 내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 제공>

현대차 '그랜드 i10' 베트남 국민차 되다

지난해 1만5873대 판매 도요타 꺾고 1위

현대차의 현지 전략차종 '그랜드 i10'이 지난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해 '베트남 국민차'로 등극했다.

자동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로 최근 아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베트남에서 줄곧 강세를 보여온 일본 도요타를 꺾고 처음 1위를 한 것어서 의미를 더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013년 말 출시된 그랜드 i10은 2014년에 8473대가 판매돼 전체 4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만5873대가 팔리며 출시 2년만에 1위에 올랐다.

그랜드 i10은 현지 판매 중인 현대 i10과 i20급 사이 소형 해치백 차량으로 동급 차량 대비 넓은 내부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높은 연비 등의 강점을 갖췄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판매 2위에 오른 차량도 다름아닌 기아차의 봉고트럭 K3000이었다. 현대기아차가 1, 2위를 모두 휩쓴 것이다.

K3000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전년 대비 판매대수 8563대로 배 가까이 늘어난 총 1만4201대가 팔렸다.

베트남 시장에서 픽업트럭의 비중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가운데 기아차의 K3000은 현지에서 파워, 승차감, 적재능력 3박자를 고루 갖춰 동급 차량 대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14년에는 도요타의 비오스와 포주너가 각각 9187대, 8589대 팔려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1, 2위를 빼앗겼다. 도요타의 비오스, 이노바, 포주너는 지난해 각각 1만3761대, 9985대, 9780대가 판매돼 3~5위에 그쳤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1, 2위 석권은 전통적으로 도요타가 선점해 줄곧 강세를 보여온 베트남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베트남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베트남 시장 판매 순위를 브랜드별로 보면 도요타가 총 5만285대를 팔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기아차가 3만8484대로 2위, 현대차가 2만3705대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차량 현대차 제네시스 첫 신청

국토부, 20일 내 적합여부 확인 후 허가증 발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운행 접수 첫 날인 12일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4시에 제네시스 1대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는 서류와 함께 운전자 2명의 명단을 국토부에 직접 제출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영동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한 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가 허가하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적적'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km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km이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날 제네시스 1대만 신청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 대학연구소 등에서도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 덕분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 급성장

운전자 지원 시스템 6년간 연평균 14.2% ↑

'픽 미 업(Pick Me Up)'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끝내고 나온 주부가 스마트폰에 대고 자신의 쏘울EV 전차를 호출한다.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명령을 전달받은 쏘울EV는 자율주행 기술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양손에 잔뜩 짐을 든 주부의 발앞으로 다가간다. 오는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언한 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 가상 영상이다. 지난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6에서 진행된 기아차의 글로벌 콘퍼런스 때 선보인 장면이다. 이처럼 꿈같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라고 부른다.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 등에 따르면 2021년까지 향후 6년간 급성장하게 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부문이 연평균 성장률(CAGR) 14.2%를 기록할 ADAS 부문인 것으로 예측됐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 6년간 연평균 5.5% 성장할 전망이다. ADAS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체와 비교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성장률이 더 가파를 것으로 점쳐진 셈이다.

자동차 차체·편의성(5.4%), 채시·안전성(3.0%), 인포테인먼트(4.7%), 파워트레인(5.4%) 등 반도체가 응용되는 다른 부문과 견줘봐도 절대적으로 성장률이 높다.

ADAS는 주차보조시스템, 프런트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V2X, BSD(후측방경보시스템), 충돌방지시스템 등으로 나뉜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자율주행을 위한 모든 원천기술이 ADAS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율주행 기술은 슈퍼컴퓨터까지 동원되는 수준이다. 미국의 하드웨어 전문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CES 2016에서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 PX-2를 공개한 바 있다. PX-2 한 대는 맥북프로 150대가 동시에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처리 성능을 자랑한다. 한편, 차량용으로 투입되는 반도체 제품 중에는 메모리IC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기아차 쏘울 주행차량.

났다. 향후 6년간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메모리IC가 12.4%를 기록해 광학반도체(8.8%), 마이크로컴포넌트IC(6.8%), 아날로그IC(3.9%), 센서·레이더(3.9%)보다 훨씬 높았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만큼 성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